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목적 외에 작가와 시흥시의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 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시흥늬내물길 스토리텔링 공모전

구 분	내 용
제목	아기 개구리의 모험
수상내역	시흥늬내물길 스토리텔링 공모전 장려상
작가	김수영
응모분야	이야기
공모주제	늬내물길을 따라 이어지는 자전거도로와 관련된 이야기

아기 개구리의 모험

어느날 물왕저수지의 잔잔한 물결 위로 햇빛이 반짝 빛났습니다. 물가에서 한가롭게 헤엄치던 아기 개구리는 반짝이는 빛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저 반짝이는 것은 분명 가장 아름다운 보석일거야.’

아기 개구리는 빛을 향해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빛을 향해 퐁퐁퐁퐁 아무리 물장구를 쳐도 빛은 저 멀리서 빛날 뿐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기 개구리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거꾸거꾸 빛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열심히 수영을 하던 아기 개구리의 몸이 딱딱한 무언가에 닿아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물 위에 뺨뺨히 눈을 내밀고 보니, 이미 빛을 한참 지나 저수지의 끝에 도착한 것입니다. 빛은 저 멀리서 여전히 반짝 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간 아기 개구리의 눈에는 눈물이 그렇그렇 맺혔습니다.

‘저 빛나는 보석은 만질 수 없는 것인 가봐.’

눈물이 또르르 굴러 물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때였습니다. 빛나는 얼음 같은 반짝이는 알갱이 하나가 아기 개구리의 눈물자국이 만든 파문 위로 똑- 떨어진 것입니다. 얼음 같은 보석은 물속에서 살랑 춤을 추더니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나가던 할미새에게서 떨어진 것입니다.

“할미새야.”

“왜 그러니? 아기 개구리야.”

“네가 떨어뜨린 이 보석 같은 것은 무엇이니?”

할미새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가에 내려앉았습니다.

“보석?”

“보석처럼 반짝이고 물에서 춤을 추며 사라지는 것 말이야.”

“아하!” 할미새는 알겠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소금 말이구나.”

“소금?”

“그래, 소금. 염전을 지나 날라 오면서 묻었나보다. 저쪽으로 가면 바다로 통하는 구불구불한 갯벌이 있어서 소금이 가득하단다.”

할미새는 바쁜 듯 대답하고는 하늘로 날아 사라졌습니다.

넓은 바다와 바다 가득한 얼음보석!

아기 개구리는 심장이 두근두근, 너무 좋아 폴짝 폴짝 뛰어 땅 위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신나서 폴짝 폴짝 뛰어 올라온 땅위는 저수지보다도 길고, 넓고, 복잡해 어디로 가야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기 개구리는 텅 빈 길 위에서 불안한 마음에 이리저리 뛰고 다시 돌아오곤 할 뿐이었습니다.

“따르릉~”

폴짝거리던 아기 개구리 뒤에서 갑자기 번개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기 개구리는 우렁찬 소리에 놀라 있는 힘을 다해 높이 짹짹 뛰어 올랐습니다. 힘껏 차오른 뒷다리가 붕~ 날라 아기 개구리는 지나가던 소년의 자전거 위로 떨어졌습니다. 소년은 아기 개구리가 뒷자리에 매달려 있는 것도 모르고 쉼쉼 자전거도로 위를 빠르게 달릴 뿐입니다.

아기 개구리는 처음 타보는 자전거 위에서 약간 어지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조심 소년에게 다가가 어깨 위로 올랐습니다. 소년은 불이 빨갛게 물들도록 신나게 달리고 있어 어깨 위에 올라온 아기 개구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빠르게 지나쳐 떨어질 것 같았지만, 평생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자 아기 개구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개굴개굴~”

아기 개구리는 신이 나서 크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 청개구리다!”

소년은 어깨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아기 개구리는 발견하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붉은 불 가득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청개구리야, 내가 네가 좋아할 만한 곳을 알고 있어.”

소년은 더욱 빠르게 자전거 도로 위를 달렸습니다. 길을 지나 빠르게 달리는 듯싶더니, 금방 온 사방에 아름다운 연꽃으로 가득한 호수가 나타났습니다. 그곳은 마치 연꽃으로 만든 숲과 같았고, 뽀뽀한 연잎과 연꽃들의 아득한 향기 사이로 개구리들의 노래 소리가 들려 오는 넓은 호수였습니다. 아기 개구리는 황홀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야. 관곡지. 네 친구들도 아주 많아.”

아기 개구리는 소년의 어깨 위에서 폴짝 뛰어내린 후, 호수로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저기 연못 위 커다란 연잎에서 무언가가 반짝였기 때문입니다.

“안녕.”

아기 개구리는 연잎 위로 올라가 반짝이는 개구리에게 인사했습니다.

“난 물왕저수지에서 온 아기 개구리야. 이렇게 반짝 반짝 하는 것을 보니 너는 소금에 대해 알고 있을 것 같구나. 그럼 이곳이 바다니?”

“물왕저수지에서 왔다고? 반갑구나! 나는 그곳에서 온 개구리는 처음 보았어. 나는 금개구리야. 소금에 대해서는 잘 몰라. 난 금개구리이니깐 반짝일 뿐이야. 이곳은 바다가 아니라 커다란 호수야. 바다는 저쪽으로 더 멀리 있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어.”

아기 개구리는 실망했습니다. 이곳을 처음 본 순간, 살랑이는 바람과 아름다운 연꽃이 가득한 이곳에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잠시 상상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구나. 금개구리야. 나는 반짝 반짝 빛나는 소금을 찾고 있었어.”

그리고는 아쉽게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은 정말 아름답구나. 하지만 나는 반짝이는 소금을 찾을 거야.”

아기 개구리는 호수를 헤엄 쳐 나와 열심히 폴짝 폴짝 뛰었습니다. 그리고 막 떠나려는 소년의 자전거 위로 봉~ 멋지게 뛰어 올랐습니다. 아기 개구리를 태운 자전거는 따르릉~ 기분 좋게 바람 속을 달렸습니다. 자전거가 부지런히 달려 갯골생태공원의 정문을 지날 때입니다. 그 위로 푸드득 철새들이 무리지어 하늘을 날았습니다. 하늘로 날아오르는 새들의 몸에서 보석같이 반짝이는 것이 후드득 떨어졌습니다.

“와 소금이야! 이곳이 소금이 있는 곳이구나!”

아기 개구리는 자전거 위에서 뛰어내려 일렁이는 뱀새가 가득한 곳으로 폴짝 폴짝 뛰어갔습니다. 소금이 가득한 염전 창고에 도착하자, 아기 개구리의 심장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빛으로 만든 알갱이 같은 소금이 수북이 쌓여, 투명한 다이아몬드로 쌓은 산처럼 반짝 반짝였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빛나는 소금이 가득한 곳이구나! 나는 여기 소금이 가득한 바다에서 살 테야!”

“넌 누구니?”

염전창고 위에서 아기 개구리를 바라보던 철새가 물었습니다.

“저는 물왕저수지에서 온 아기 개구리예요. 반짝이는 소금을 찾아서 왔어요.”

“물왕저수지라니, 멀리서 왔구나.....그렇지만 아마 넌 이 곳- 갯골에서는 살 수 없을 거야.”

철새는 안타깝게 아기 개구리를 내려 보았습니다.

“아니 왜요?” 아기 개구리는 깜짝 놀라 크게 외쳤습니다.

“물랐구나? 이곳은 소금기가 많아 너 같은 개구리는 살 수 없다고 들었어.”

철새는 이야기를 남기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아기 개구리는 뒷다리가 후들 떨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소금은 이렇게 눈앞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만질 수도 있는데, 아기 개구리는 이곳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눈물이 아기 개구리의 볼을 타고 또르르 흘러 내렸습니다.

“잠깐! 아가야.”

저 멀리서 삐죽, 농게 할아버지가 타박타박 걸어왔습니다. 농게 할아버지는 아기 개구리를 살피 듯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습니다.

“아기 개구리야. 네가 소금을 찾은 것은 소금을 가지기 위해서니?”

아기 개구리는 슬픔 때문에 대답할 힘이 나지 않았지만, 흐르는 눈물을 닦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빛나는 것을 만지고 싶어서 소금을 찾아 왔어요. 하지만 이 많은 소금은 혼자 가지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저는 그냥 빛나는 소금을 보고, 그 옆에서 있는 것이 좋아요.”

농게 할아버지는 단단한 다리로 힘차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냥 소금을 좋아하는 착한 아기 개구리는 소금 옆에서 살 수 있단다.”

“하지만 철새가 나 같은 개구리는 이곳에서 살 수 없어요.”

“아니다. 이곳 갯골은 너같이 착한 개구리들이 살 수 있는 특별한 곳이란다.”

농게 할아버지는 아기 개구리의 손을 꼭 잡고 갈대숲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아기 개구리는 눈물 때문에 앞이 뿌옇게 보였지만 농게 할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따라갔습니다. 갈대들이 바람 속에서 차르르 춤을 추었습니다.

“자 이곳은 둌병이란 곳이다.”

아기 개구리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이 한 방울 뚝 떨어지자, 갈대 숲 사이로 또렷하게 아름다운 호수가 나타났습니다. 한가롭게 둌병 위에 떠 있던 소금쟁이가 쨍쨍-하며 아기 개구리는 바라보았습니다.

“둌병에는 너와 같은 개구리나 송사리, 소금쟁이가 살 수 있는 곳이다. 신나게 헤엄치고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가고, 빛나는 소금이 보고 싶을 때는 갯골에 놀러오면 된단다. 이곳은 그런 곳이야.”

아기 개구리는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둌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결심한 듯 둌병으로 퐁퐁~ 뛰어들었습니다. 금세 떠오른 아기 개구리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농게 할아버지- 자주 놀러 갈게요-”

아기 개구리는 다리 위에서 지켜보는 농게 할아버지에게 크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둌병의 파문이 아기 개구리의 마음처럼 점점 더 크게 원을 그리며 멀리멀리 퍼져 나갔습니다.